

교수회 의장단 총장 면담 보고

날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성산홀 총장 집무실

교수회는 지난 11월 28일에 총장을 만나 ①학교 성장 견인 정책 촉구, ②학교 브랜드 견인 정책 촉구, ③주요 현안 로드맵 정책 촉구, ④구성원 의견 수렴 정책 촉구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별 총장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한 후 총괄적으로 들은 답변을 정리한 것이어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읽어주시시오.

1. 학교 성장 견인 정책 촉구 : 총장과 대학 본부 정책 요지는 등록금 감소에 따른 축소 지향 정책이다. 교과목 축소, 폐강 기준 강화, 예산 축소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정책으로 4년을 일관한다면, 우리 대학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등록금 감소에 따른 예산 사정이 총장과 대학 본부의 정책 집행 기준으로 보인다. 4년 후 학교 생존을 이끄는 혁신과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2. 학교 브랜드 견인 정책 촉구 : 우리 학교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 우리 학교가 입학에서 고전하는 주된 이유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수시 지원자 대상의 교수 전화 상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입시 관련하여 새 집행부의 비전이 수립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2024년 학교 홍보는 획기적 변화를 기대한다.

[총장 답변]

- 학교 경영의 비전은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대학이다. 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학생들이 성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자신 있게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 이를 위해 학생 관련 행사에 많이 가고 있다. 홍보팀에는 총장보다는 학생들의 성과가 많이 언론 보도가 되도록 요청했다.
- 우리 대학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학이 되도록 만들겠다. 학생이 오고 싶어하는 학과들이 많은 대학이 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게 학내 자원의 재분배다. 학내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줄이고 축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대학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 지금은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학과 지원을 위한 여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개별 학과의 학생들한테는 좀 더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야 학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런데 개별 학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과목을 듣게 하는 일과 대학 전체의 교과목 수를 줄이는 일은 얼핏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재정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교수나 직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는다면 처우를 줄이지 않는다는 게 총장으로서 경영 방침이다.
- 학교의 브랜드 가치는 높여야 되고, 학과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재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 없이 인건비도 안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어쩌면 양립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전체적으로 학문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도 학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 평균적으로 어떤 과에는 학생이 몰리고 어떤 과에는 학생이 줄면서 폐강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강좌당 평균 인원은 줄게 되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어렵다.
- 강좌 수를 줄여도 수강생 수와 관련된 교육 여건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듣게 하면서도 대학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학과를 크게 세 가지(특성화/차별화/전문화)로 나누고자 한다. 특성화 그룹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관련되고, 입학 시장에서 먼저 물어보는 그룹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입시가 어려워지며 이 그룹에 집중을 못 했다. 우리 대학이 미달이 안 되어야 하니까 약한 그룹 중심으로 홍보를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입학 사정이나 교육 환경이 좀 더 나빠지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 그래서 약한 그룹은 전문화시키려고 한다. 전문화라는 건 좀 더 실용적이고, 필요하다면 교육과정도 바꾸고, 더 필요하다면 학과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학과 수를 줄이려고 한다.

3. 주요 현안 로드맵 공개 정책 촉구 : 교내게시판 <금주 대학소식>이 대학본부 부서의 단순 일정 안내로 고착되고 있다. 구성원은 교무, 기획, 사무 행정에 관심이 각별하다. 학교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로드맵이 밝혀지는 방식을 도입해달라. 예를 들어 사무처가 학교의 전체 공간을 확인하였다면 추후 이와 관련된 계획을 밝힐 필요도 있다. 주요 현안 공유, 예고되는 행정을 기대한다.

[총장 답변]

- 교수회 지적처럼 로드맵이 별로 없어 보이고 구성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소통이 부족하다 싶긴 한데 지난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입시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면담했다. 이런 학과들을 좀 더 실용적인 학문 위주로 재편하고 확보된 재원을 경쟁력이 있는 학과에 쏟아부을 생각이다. 최근에는 특성화 그룹을 갈 수 있는 학과를 만나고 있다.
- 주요 현안 로드맵이 공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4. 구성원 의견 수렴 정책 촉구 : 3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총장과 대학 본부는 구성원 대표를 상대로 학교 현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는 행정을 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거점통합행정실은 수업의 질과 관련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 우려하는 교수들의 의견이 있다. 대학본부가 완성한 정책을 구성원에게 통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총장 답변]

- 부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총장이 먼저 부처를 만나 기본적으로 의견을 나눈 다음 이런 기조로 가자고 결정한 후, 관련된 학과들을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계속 만났다. 직접 당사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 교수회 의견을 들어보니 로드맵이라는 게 좀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 지금까지 주로 해온 건 축소하고 줄이는 거였는데, 그 이유는 학교의 성장을 위해서다. 처우의 문제에서 복지는 조금씩 회복하려고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모집중지 학과 교수님들의 경우에도 굳이 본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학과 소속을 바꿔 주십사 요청하고 있고 제도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총장 답변에 대해 교수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현장에서 밝혔습니다.

- 교과목 축소, 폐강 기준 강화, 자원 재분배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대학본부가 성장 정책으로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총장 및 대학본부와 구성원 소통에 대해서는 총장이 각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특별연구년제가 그렇다. 대학본부가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면서도 교수회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 특별연구년제는 교원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
- 예산 문제도 그렇다. 20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편성 기조를 대학본부가 교수회에 사전에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는 교내연구비 등 교원의 관심사를 교수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총장과 대학본부는 구성원과의 적합한 소통 방법을 만들어 이행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교원소속 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총장은 관련 교원만을 당사자로 간주하지 말고 소속 전환 대상 학과의 교원들도 이 문제의 당사자로 간주하며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